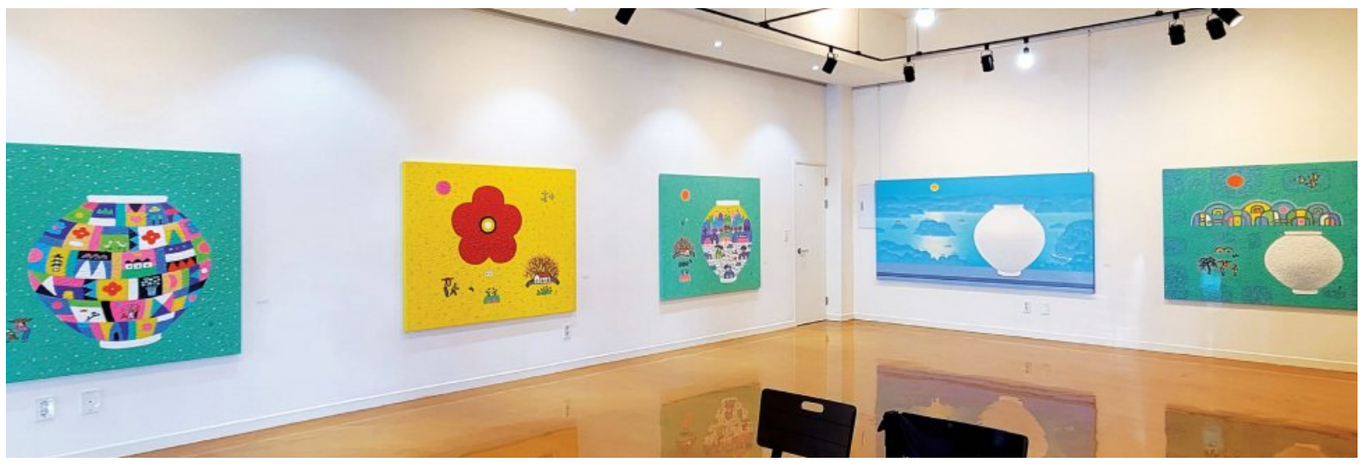
작가·시민 문화사랑방…동명동에 '갤러리 DAON' 오픈

조문현 작가 개관, 23일까지 '달 항아리가 있는 풍경' 전
대관 등 진행…아내 유봉자씨, 미술심리상담연구소 운영


조문현 작가가 동명동에 문을 연 '갤러리 DAON'.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의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대표적인 동네가 동명동과 양림동이다. 동명동은 멋있는 카페와 음식점은 많지만 양림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적어 늘 아쉬웠다.

최근 문화 거점 역할을 할 동구 인문학당이 새롭게 개관한 데 이어 동명동에 소박한 갤러리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끈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바로 앞에 개관한 '갤러리 DAON'(동구 동계로 10번길 20-1)은 조문현 작가가 지난 7일 문을 연 공간이다. 인근에는 '꿈집', '청미장', '콩집' 등 광주 폴리와 책방 심가네 박씨, 풍물패 굴림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뜨락, 미노갤러리 등이 자리하고 있다.

1층에 자리한 '갤러리 DAON'

두암동에 오랫동안 작업실을 두고 있었던 조 작가는 지난해 땅을 구입했다. 산수동, 계림동, 동명동이 만나는 지점이라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등 문화예술 공간과 가까운 점도 마음에 들었다.

27평 규모의 아담한 갤러리는 4층 건물의 1층에 자리잡고 있다. 갤러리 이름 '다온'은 순우리말로 "즐겁고 행복하며 모든 좋은 일들은 내게로 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갤러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 작가가 직접 지었다.

현재 개관전으로는 '조문현-달항아리가 있는 풍경'(23일까지)전이 열리고 있다. 갤러리에서는 자신의 작품 뿐 아니라 전통과 형상회 등 오랫동안 활동해온 단체의 작품도 선보일 생각이다. 또 전시를 원하는 작가들에게는 대관도 해준다.

2층은 조 작가의 작업실로 쓰인다. 또 교육학 박사로 전남대에서 미술치료 등을 가르치고 있는 아내 유봉자씨가 광주교육심리발달상담연구소와 미술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중이다.

조 작가는 다온갤러리가 작가들의 사랑방이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러 편하게 그림 감상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조 작가는 아직 며칠되지 않았지만 갤러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은 자신감을 얻었다. 광주의 대표 문화 공간이라는 예술의 거리에서 전시회를 열 때면 지인들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새로운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져 '무언가 행사를 꾸려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작업실을 떠나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튼 게 모두 자연스레 이뤄졌어요. 아담한 공간이지만 이 곳이 작가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더라구요. 젊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들러 그림을 보고 가는 게 참 좋아보였어요."

개관전에 찾아온 동료 작가들 중에는 자신도 갤러리 인근에 작업실을 열고 싶다는 이들이 많았다. 몇몇은 빈 집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당부도 했다. 조 작가는 시간이 흘러 이 곳이 작가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예술마을처럼 되면 좋겠다고 했다.

조문현 작가는 '달항아리 작가'로 불린다. 지난 2007년부터 달항아리 작업을 진행해온 그의 작품 속에는 달항아리 뿐 아니라 새, 꽃, 강, 아이들, 해와 달, 나무, 집, 물고기가 서로 어우러져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에는 캔버스에 한지를 붙여 마티에르 느낌을 살린 입체적인 작품들이 나왔으며 담백한 달항아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과 항아리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조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광주시 문화예술상 허백련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협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통과 형상회,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원으로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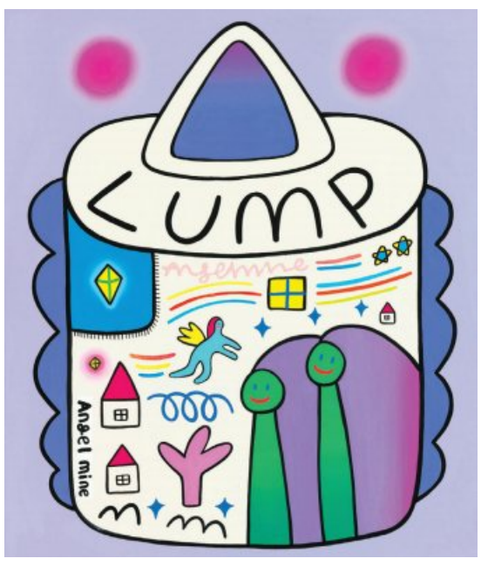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문현 작가

우리 집 내 방에 '나를 위한 컬렉션'

이상원 작 'The Flowers-유채꽃축제'

120여 작품 '아트페어'…15일~ 5월10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알렉스 카츠·김창열·오승윤·천경자·정승원 등 42명 참여



강동호 작 'angel mine'

'우리 집에 그림 한 점 어떨까.'

미술 시장 활황과 더불어 아트페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와 함께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와 컨셉을 갖춘 아기자기한 페어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해 'Limited Art Fair:아트 컬렉션의 시작'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열리는 'Un+Limited Art Fair+나를 위한 컬렉션'은 지난해의 연계 전시로 주제와 참여작가를 확대해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갤러리 뿐 아니라 백화점 1층 중앙광장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해 관람객들이 좀 더 많은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오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테마는 'Unlimited'로, 규정되지 않는 작가들의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자리이자, 내 취향에 꼭 맞는 '나를 위한 컬렉션'을 채워 나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데미안 허스트 작 'I Love You - m'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와 해외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를 비롯한 국내 인기 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작품 120 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해외 10명, 국내 32명 등 모두 42명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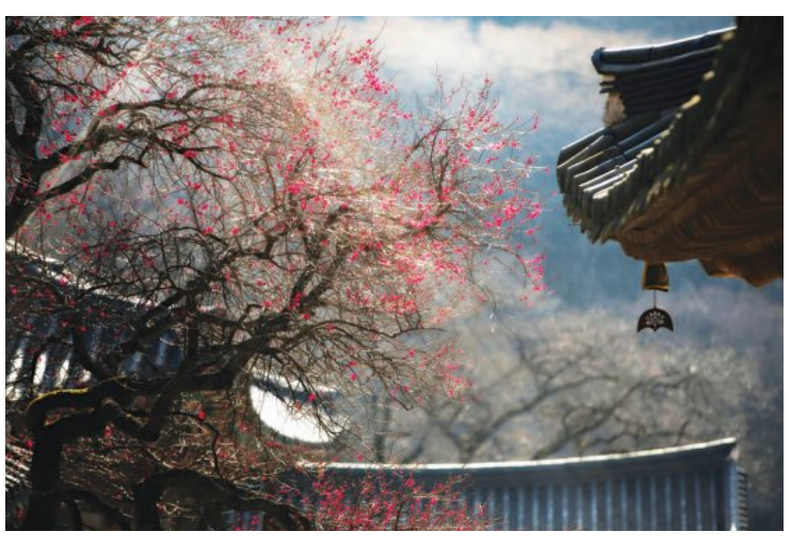
해외 대표 참여 작가로는 '현대미술의 악동' 데미안 허스트, 과감한 화면 구성과 감각 있는 색채로 가장 뉴욕적인 화가라 불리는 알렉스 카츠, 라이징 스타 매드 사키, 줄리언 오피, 아니쉬 카푸어 등이 눈길을 끈다.

국내 대표 참여 작가로는 물방울 회화의 거장 김창열, 화려한 오방색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오승윤,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 등 한국 근현대 회화 거장들의 작품이 한 데 모였다. 또 김강용·김태호·이상원·이이정은·정영주 등 개성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신세계갤러리는 또 지역 작가들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연계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강동호·이인성·정승원·하루.K도 초청해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어마이광주' 홍보관은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플랫폼 내 아트스토어에서 다양한 지역작가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다.

관람 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8시(금~일요일 오후 8시30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화엄사 사진콘테스트 최우수상 임하선 '화엄사의 봄'

2022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콘테스트 전문작가 부문 최우수상(종계종 총무원장상·상금 300만원)에 임하선 씨의 '화엄사의 봄'〈사진〉이 선정됐다.

화엄사는 최근 화엄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부문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심사에는 사진작가인 김인호 시인, 조대연 광주대 사진학과 교수 등 전문 사진작가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교육원장상(200만원)에는 이영태 씨의 '홍매화 스님들'이, 포교원장상(200만원)에 강희진 씨의 '들매화야경', 교구장스님상(100만원)에 나승만 씨의 '흑매핀 산사의 밤'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템플스테이 이용권이 주어진다. 휴대폰 사진 콘테스트 부문에서는 신승희·김영수·이도은·유영주·이득희 씨가 각각 입상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전문 사진가의 작품 551작품, 휴대폰 카메라 1204작품을 비롯해 모두 1755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꺼벙이' '오성과 한음'…추억의 명랑만화 웹툰으로

1970~1980년대 어린이를 사로잡았던 명작 명랑만화들이 웹툰으로 새단장해 독자를 만난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플랫폼 버프툰과 함께 옛날 만화 여섯 편을 웹툰으로 만든 '추억의 명랑만화 리-턴즈'를 14일부터 2주 동안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길창덕 화백의 '꺼벙이', 신문수의 '말자 행진곡', 윤승운의 '꼴지와 한심이 세계일주', 박수동의 '신판 오성과 한음'·'번데기 야구단', 이정문의 'UFO에서 온 소년 루카'가 웹툰으로 제작됐다.

협회는 "한국 명랑만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작품들이 40~50대에게는 인생의 어린 시절을 소환하는 마법 같은 시간을, MZ세대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